

# 장성군 폭염 취약 주민 1대1 전담관리

### 69명 '건강 지킴이단' 발족 1000여명 대상 건강 살피기 부채·쿨토시 등 꾸러미도 전달

장성군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건강이 약해질 소지가 있는 주민 1000여명을 중점 관리하는 등 군민 건강 살피기에 집중하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보건소·지소·진료소 관계자 69명으로 '건강지킴이단'을 구성해 고혈압, 당뇨,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거나 홀로 거주 중인 노인 등 취약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1대1 전담 관리를 시행 중이다.

건강지킴이단은 대상 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살피고,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통화 중 건강 이상 등 응급상황을 감지하면 즉시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병원 이송,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부채와 '쿨토시' 등 냉방용품으로 구성된 '폭염 대비 꾸러미'도 집집마다 전달해 무더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록 어르신 1500명을 대상으로 주1회 가정 방문을 통해 안부를 살피고,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장성군이 어르신 안부를 살피고 양우산을 지원하는 등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우산을 들고 포즈를 취한 장성 어르신들. <장성군 제공>

환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독거노인응급안전심서비스 기기 900여 대를 활용해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관리요원, 119요원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운영 중이다.

임동섭 장성군 가족행복과장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홀로 거주 중인 어르신 건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며 "안전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강진 불금불파 시즌2, 다음달 6일 개장

### 2개월 휴장 끝내고 재개장

강진군이 병영면 지역의 문화자원과 고유한 음식을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색다른 행사를 선보인 '불금불파' (불타는 금요일에 불고기 파티) 시즌2를 9월 6일 개장한다.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2개월간의 휴장기를 갖고 이어진 재개장으로, 본격적인 행락철에 맞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유난히 길고 습한 폭염이 계속돼 재개장을 한 후에도 당분간 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보고 행사 시간을 1시간 늦춘 오후 5시부터 개최하고, 술과 음료의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해 양동이와 얼음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우천 시 병영시장 장육 사이를 활용

해 행사를 진행했지만, 하반기에는 장육 사이마다 전구를 설치해 불고기 파티 분위기를 한결 살리는 인터리어를 선보인다.

조산 주차장에서 행사장으로 이어지는 다리에 포토존을 조성하고, 기존 포토존도 새롭게 단장해 불금불파의 흥행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병영 투어 1박2일 프로그램'을 텐트촌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으로 진행하고 텐트뿐 아니라 개인 카라반까지 확대 운영해 체류형 관광으로의 변신을 시도한다.

가족단위 고구마 캐기 체험도 추가해 자연과 함께하는 재미를 더하고 하멜기념관 일원 텐트촌에서 병영시장 주변에도 점차 캠핑장을 조성해 가족 관광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 영산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영산포 상생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난 20일 운영태 나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열렸다. <나주시 제공>

# 나주 영산포 상생센터 문 열었다

### 도시재생 뉴딜 원도심 활력 거점 일자리·소득 창출 교육실 등 갖춰

나주 영산포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요람 역할을 할 '영산포 상생센터'가 문을 열었다.

나주시는 지난 20일 영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영산포 상생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센터 준공식에는 운영태 시장과 이재남 시의회의장, 시의원, 김민주 영산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장, 장흥준 영산포농협조합장을 비롯한 영산동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센터는 연면적 491.9㎡, 지상 3층 규모로 영산포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교육·복지 공간 확

충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1층은 주민 문화복지프로그램과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다목적 회의실과 현장지원센터가 들어섰다.

2층은 주민 공동체, 축전공목상생상가 창업 등 주민 일자리·소득 창출을 위한 교육실과 공동작업장, 주민 쉼터 등을 갖췄다.

영산포 역사를 담은 홍보관도 3층에 동지를 틀었다. 마을 활동 기록, 홍보, 동아리방 등 주민 간 소통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태 나주시장은 "영산동 상생센터가 영산포 주민들의 교류, 일터, 문화·여가 공간이자 도시 활력의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기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중점으로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담양군,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

### 65세 이상...다음달 3일까지 신청

담양군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선이탈 경보장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생계 유지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 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이다.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82명에 이른다.

차선이탈 경보장치는 195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자차를 실제 운전하는, 담양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우선순위는 영업용 차량(개인용), 고령자, 취약

계층(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기타(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순이다.

접수 기간은 8월20일부터 9월3일까지며,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9월 11일 개 최중 선정자를 발표하고 추후 공지를 통해 지정된 장소에서 장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담양군 경제교통과(061-380-31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농촌의 경우 운전면허 반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교통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장평-장동간 4차선 확장 조기 추진해 달라"

### 장흥군의회 전남도 방문 요청

장흥군의회는 지난 21일 전남도 건설교통국을 방문해 '장평 봉림-장동 배산 간 지방도 839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의 조기 착수를 요청했다.

장흥군의회는 이날 장흥군이 전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이 더딘 원인은 광주시와 연결된 4차선 도로가 없는 등의 부족한 지역 도로망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은 "경제적 타당성만을 기준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경우 균형발전

에서 소외되는 지자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4차선 확장 사업은 지역의 경제 발전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을 촉구했다.

장흥군의회는 또 전남 서남부권 9개 지역 주민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장흥댐 건설 당시 장흥군이 감당한 희생을 언급하며 지방도 839호선 확장 공사의 공정한 추진을 강조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한국토지부동산(주)

## 전원주택 신축

##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 상담문의 010-3733-3933